

지역 소식통

고창군, 해외 고고학자 초청 팸투어...역사문화 홍보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해외 고고학자 17명을 초청해 세계유산도시 고창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참가자들은 4일부터 진행된 경기도 연천 구석기 축제에 참여하는 해외 10개국 선사 문화 전문가들이다.

고창군은 팸투어를 진행하기 앞서 연천군과 협의하여 연천 구석기 축제장에 고창 방문의 해 홍보부스를 개설하고 4일간 운영했다.

군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과 활용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창 고인돌유적과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 현장 등을 방문해 고창의 찬란한 역사문화와 변천사를 알아간다. 또 고창갯벌 등 자연유산도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 학습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도시민 10가구 체험

정읍시는 지난 4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교한 도시민 10가구를 대상으로 영농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고추 오이 가지 방울 토마토 비트 참옥수수 들깨, 조선훈박, 오이고추, 상추 등 10종의 모종에 대하여 작물 기본 이론 습득 및 현장 실습체험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은 귀농 선도농가이며 햇빛을즐기는농부 대표인 양형두 강사의 진행과 귀농귀촌협의회 정창영 참여로 입교자 가족이 10종의 모종 150여 묘목을 가구 별 텃밭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시 관계자는 "정읍시 귀농 등으로 전입을 마친 도시민 입교자 10가구의 추가 영농체험은 배추 무 등 가을철 영농체험으로 9월경 실시할 예정이며, 더욱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청보리밭축제 성료

4월15일부터 23일간 35만명 방문객 몰려

고창군은 '제20회 고창 청보리밭축제(4월15일~5월7일)'가 23일간 35만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유채와 보리밭 모두 절정이었다던 지난 4월30일에는 하루 최대인원(3만500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청보리밭축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로 꼽힌다. 보물찾기, 2023 고창 방문의 해 SNS 이벤트, 도보 관광객을 위한 정읍역 셔틀버스 운행, 푸드코트 형식의 공동식사장소 운영, 지역 농산물(바지락, 장어, 보리 등)을 활용한 특색있는 먹거리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체험프로그램인 '보리코인 보물을 찾아라'는 많은 관광객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보리코인 복주머니 모양의 보물을 찾으면 지역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남녀노소 모든 관광객에게 이색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 고창 청보리밭축제의 두 번째 키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시범적으로 축제 기간 한시적으로 주차요금(5000원)을 받아 전액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줬다.

이후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석정온천, 상하농원 등에서도 5~10% 할인쿠폰 이벤트를 통해 축제 방문 관광객이 고창으로 들어오는 데 큰 역할을 담당



했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문화공연행사, 대폭 확충된 편의시설(화장실, 물품보관소 등)과 부스 판매원과 지역주민의 친절함도 호평을 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계획된 '복분자와 수박축제'를 비롯해, 물축제, 갯벌축제, 모양축제 등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황으로 만든 쌍화차 · 지황차'

정읍시 · 지황융복합 사업단 등, 정읍지황 알리기 나서

정읍시 · 정읍지황융복합사업단 · 정읍시립요양원 · 정수회는 지난 8일 정읍지황을 알리고 부모공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읍시립요양원에서 정읍지황 홍보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정읍시립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과 보호자, 종사자 등 120명이 참여했다.

주최측은 정읍지황으로 만든 쌍화차, 지황차 시음과 함께 효능등을 알리는 등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한 색소폰 연주 등 작은음악회 공연과 케이크전달 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입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식사 배식봉사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행사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정읍지황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정읍지황 인식제고 및 판매촉진을 위해 온라인가판 홍보, 판매촉진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 시비 10억 5천, 자부담 4억 5천)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정읍시는 지황 영농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상품개발, 마케팅, 시설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첫 모내기 현장 방문 농가 격려

행안면 삼간리 한 농가 방문 애로사항 등 청취

권익현 부안군수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9일 행안면 삼간리 고형업(81)씨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이른 새벽부터 모내기에 여념이 없는

농가를 격려했다. 이날 모내기는 2023년 부안군 첫 모내기이며 조생종인 해당벼로 특별한 기상 이변이 없이 적기 영농이 추진된



'대한민국 클라이밍 성지 고창' ... 인공암벽장 개장

경사면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다이나믹한 움직임, 운몸을 이용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

전북 고창군이 9일 고창 나들목 공원에 조성한 인공암벽장을 개장했다. 인공암벽장은 2023 고창 방문의 해와 더불어 위치적으로 고창 초입에 있어 방문객들에게 눈길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공암벽장은 2019년부터 총 20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373.51㎡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은 외부 리드벽(32m×32m),



스피드벽(6m×16m) 및 내부 실내 인공암벽장,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리드벽은 정해진 시간 안에 인공 암벽을 가장 높이 오르는지, 스피드벽은 가장 빠르게 오르는지를 경쟁하는 인공암벽을 말한다.

각 시설에는 추락을 자동 방지하는 오토브레이크 시스템을 비롯해, 바닥에는 충격흡수매트를 설치해 이용자의 안전도 확보했다.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안전관리자 2명이 배치되어 누구나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부안군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시작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대한 지역봉계를 생산해 근거에 기반한 보건사업을 수립 · 평가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조사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이며 선정된 가구에는 조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구선정 통지서와 소책자 등이 우편 발송된

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식생활 등)와 질병이환, 의료이용, 삶의 질,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이며, 6명의 조사원이 선정된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참여로 생산된 지역사회건강통계는 지역에 꼭 필요한 보건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당가정에 조사원이 방문 시 건강조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5~7일 평균 122.9mm 비... 가뭄해소 도움

고창군은 지난 5~7일 3일 동안 관내 평균 122.9mm(최고 153mm)의 비가 내리면서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비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저수지 저수율은 5월8일 기준 평균 89%로 평년대비 2%이상 높아졌다. 고창군 자체 관리 저수지도 90%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면서 농번기 농업용수 공

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저수율이 70%에 머물러 가뭄 피해를 우려해 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비로 모내기철 가뭄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저수지 관리로 농업인의 풍년 농사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